

<훈련 결과보고서 요약서>

성 명	문형규	직 급	행정사무관
훈 련 국	미국	훈련기간	2020.12.18.~2022.10.17.
훈련기관	조지워싱턴대 엘리엇스쿨	보고서 매수	118 매
훈련과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미 방위비분담 제도 발전 방향 연구		
보고서 제목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U.S. Defense Cost Sharing System considering the Changes in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내용요약	<p><b>I. 서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쟁 당시 파견된 미군은 휴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한 군사동맹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포괄적 전략동맹” 으로 발전</li> </ul> </li> <li>○ 하지만,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방위비분담금을 놓고 한미가 첨예한 갈등을 보였던 것도 사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美측 시각에서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게 된 국제안보환경을 살펴보고,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검토, 향후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더욱 더 강력한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모색</li> </ul> </li> </ul> <p><b>II. 국제 안보 환경 변화</b></p> <p>a. 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전 종료 후 미국은 민주평화론에 근거하여 ‘규범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를</li> </ul>		

	<p>세우고자 노력하면서, 중국의 시장경제 발전과 WTO 등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적극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지만, 중국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분쟁, 민주주의 및 인권 탄압, 지식재산권 미보호 및 산업스파이 활동을 통한 경제질서 훼손 등을 실시</li> <li>○ 게다가, 중국은 대만에 영토권 주장을 위해 무력 시위를 강화하는 등 기존의 미국 주도의 ‘규범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변경을 시도하는 대외정책을 추진</li> </ul> <p>b. 대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대만이 역사적으로 중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하며, 2013년 시진핑이 중국의 권력을 장악한 후 대만과의 통일을 적극 주장하며, 대만의 분리 독립 주장에 대해 강경한 태도 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 시사</li> </ul> </li> </ul> <p>c. 러시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러시아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위협 세력으로 인식</li> <li>○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파병과 같은 직접적 개입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군수지원을 통해 대응</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불어, 미국은 러시아는 미국의 지도력을 약화하고 미국의 이해와 동맹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li> </ul> <p>d. 북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한편, 핵보유국의 지위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자 노력</li> <li>○ WMD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사이버, 초음속미사일와 같은 신무기 개발 등을 지속 추진</li> </ul> <p>e.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특히 중국군의 현대화와 군비 확장에 대해서 깊이 우려</li> <li>○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경제 및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자 AUKUS 창설 QUAD 정상회의, IPEF 신설 등을 추진하며 대응</li> </ul> <p><b>III. 미국의 대전략 (US Grand Strategy)</b></p> <p>a. 대전략의 구성 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략의 목표는 미국의 국익과 관련되어 있으며, 미국은 국익을 필수적 국익, 매우 중요한 국익, 중요한 국익 그리고 덜 중요한 국익으로 구분</li> <li>○ 대전략 실행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인 미국의 군사력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회계연도 기준 777,7조 원의 국방예산을</li> </ul> </li> </ul>
--	--

	<p>책정하고 있으며, 전 세계 약 80개국에 750개의 미군기지를 보유, 그리고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미국은 경제적 제재와 개발지원과 같은 비군사적 도구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강화된 현 국제 경제체제를 미국은 무기화 가능 (파놉티콘 효과 / 초크 포인트 효과)</li> </ul> </li> <li>○ 한편, 미국은 동맹과의 협력과 다자주의적 접근과 같은 외적 수단도 대전략을 위해 활용</li> <li>○ 한편, 미국은 국익을 달성하기 위한 대전략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및 러시아와의 갈등, ▲ 핵무기의 확산과 위협, ▲ 초국적 안보 위협(기후변화, 전염병 등), ▲ 민주주의와 인권의 약화 등을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장애 요인으로 인식</li> </ul> </li> </ul> <p>b. 미국 외교정책 학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ead 교수는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건국 아버지들의 이름을 빌린 4개의 사조가 있으며, 이들이 미국의 외교정책의 토대 구성한다고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밀턴주의: 경제와 상업을 중시하는 현실주의</li> <li>- 월슨주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상주의</li> <li>- 제퍼슨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되, 국제분쟁에 대한 개입을 낮춰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현실주의</li> <li>- 잭슨주의: 매파로 분류되며 국제문제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경제 등 국내 문제에 집중</li> </ul> </li> </ul>
--	--

	<p>c. 현대 미국 대전략의 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세 (Primacy): 우세는 국제정치에서 한 행위자의 권력이 타국 또는 비국가적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중국의 위협과 미국의 우세 (U.S. Primacy)는 학계의 주요 관심사</li> <li>○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Liberal Internationalism):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강화로 자유주의적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Deudney와 Ikenberry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회복 탄력성 강조</li> <li>○ 자제 (Restraint): 군사적, 경제적 비용이 큰 미국 대전략에 대한 반발로서, 국제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자제하여 미국인의 생명과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li> </ul> <p>d.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정 국가안보 전략지침: 동 문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을 초월하는 안보 위협, 민주주의의 약화, 국제적 권력 배분의 변화,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을 주요 위협으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응책으로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 중산층을 위한 국내·외 경제정책 추진, 민주주의 보호 추진</li> </ul> </li> <li>○ 인도-태평양 전략서: 22년 2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간한 요약서에는,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며,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추구한다고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모든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써</li> </ul> </li> </ul>
--	---

	<p>이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협력 중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정책서: 동 문서에서 미 국방성은 중국을 미국에 도전하는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중대한 위협으로 보았으며, 이란과 북한은 지속적인 위협으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국방성은 동맹과의 협력, 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군사력 우위 및 억지력 확보를 국방정책 방향으로 설정</li> </ul> </li> <li>○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및 국방전략은 한국 안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미국의 동맹 전략이 강화됨에 따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외교·국방장관 회의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li> </ul> <p>IV. 한미 안보 협력</p> <p>a. 한미관계 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쟁 이후 한미는 상호방위조약을 1953년에 체결하여 군사동맹을 체결하면서 한미동맹을 형성</li> <li>○ 현재 85%의 한국민들이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70%의 한국민들은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li> <li>○ 미국 CRS 보고서에서는 한미관계에 영향 요인을 5가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위협,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 국제 경제 및 무역에서 한국의 지위, 한국의 지속적인 민주화,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서 지위와 자율성 확대 의지</li> </ul> </li> </ul>
--	---

b. 한미안보 동맹

- 한국전쟁 당시 30만 명을 넘었던 주한미군은 현재 약 28,500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

c. 한미 주요 안보 현안

- 한미는 지난 69년 동안 군사동맹을 이어오면서 다양한 안보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현재 주목도가 높은 안보 현안은 다음과 같음.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미연합훈련 재개, 한국의 핵무장 (또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 한국의 독자적 대공 방어망 구축, 주한미군기지 이전, 전시작전권 전환, 방위비분담금 등

V. 한미방위비 분담

a. 한미방위비 분담 개관

- 한국은 1991년 미국과 합의를 통해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미상호조약 및 SOFA와는 다른 별도의 법률적 합의문서(SMA)를 통해 규정
-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노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3개 항목으로 구분
-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998년 IMF 위기와 2005년 주한미군 감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과거,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한국에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청으로 인해 한미 간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제10차 방위비 협상은 단년도 합의로 마무리되었으며, 제11차 협상은 제때 마무리되지 못해,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b. 제11차 SMA 협상의 결과

-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한미 간 오랜 진통 끝에 합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차기 협상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
-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6년간 한국 국방부의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방위비 증액의 근거로 삼고 있으며,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음.
  - 단, 2021년도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으로,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 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으로, 13.9%라는 수치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고려한 예외적인 증가율임

c. 이론적 접근

-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이론적 접근으로는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 발전력 이론 및 각종 방위비 분담이론 등이 방위비 분담금을 설명
- 주요 주장은 약소국이 경제력이 증가하면 기존에 동맹국에 양도했던 자율성을 회복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안보를 제공하는 강대국은 약소국이 제공하던 간접적 지원과 함께 직접 지원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약, 약소국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위협이 점증되어 동맹의 필요성이 강화되는 경우나 강대국의 국력이 약화할 때는 약소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확대를 요구</li> </ul> <p>d.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GA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 국방성은 13.4 조원을 주한미군에 사용(\$1=1,000원)하였으며, 약 98%는 육·공군이 차지</li> <li>○ 美 GAO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같은 기간 약 5.8조 원을 지원 (\$1=1,000원) 하였으며, 美 국방성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한국 정부의 직간접 지원비에서 SMA 비용만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한국의 NPSC는 약 60% 수준임.</li> </ul> <p>VI. 해외사례연구: 일본</p> <p>a. 주일미군 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에는 약 5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해군과 해병대가 주요 구성군임.</li> </ul> <p>b.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의 방위비 분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은 노무비, 광열수료, 훈련이전비, 제공시설정비비, 훈련장비 및 자재 구매비로 구성</li> <li>○ 일본은 매년 약 2조 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간접적인 금융 지원을 포함하면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약 12.6조 원을</li> </ul>
--	--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지원 (\$1=1,000원)

-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과 직간접금융지원액을 합한 지원 총액은 한국보다 매우 높으나, NPSC에서 한미간 유효한 차이 확인이 어려움.
- 한편,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제도는 지원방식, 총액결정방식, 지원구조, 미군의 병력 수 등의 차이로 인해 1:1 단순 비교는 불가

## VII. 결론 및 정책 제안

-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강화되는 가운데 동맹의 역할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퍼슨주의적인 입장에서 안보 전략을 구사하는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에게 더욱 큰 역할을 주문할 가능성 불배제, 이로 인해, 차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신중한 정책적 대응 필요
- 이러한 미국의 안보환경과 안보전략을 고려하여 한미방위비 분담금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추진 시, 첫째, 한미연합방위태세 및 한미동맹의 공고화 필요. 둘째,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은 한미간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 대국민 이해 제고. 셋째, 한미가 공동으로 방위비 소요를 사전에 검토하여 방위비 분담금의 투명성 제고. 넷째, SMA 이외에 한국이 지원하는 간접지원비를 적극 활용. 다섯째, 방위비 분담금에 신규 항목의 신설 제한.
  - 향후, 한미방위비 분담금 제도의 발전 방향은 국제안보정세,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국익 제고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접근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됨.